

소공동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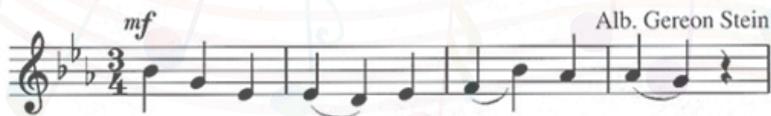
2026 **1**

제516호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복국

가톨릭성가 1번 나는 믿나다



1. 나는 굳게 - 믿 나 - 이 다 -
2. 주의 계 명 - 깊 이 - 새 겨 -



진 실 하 온 - 주 님 말 씀 성 세 때
바 른 길 로 - 나 가 리 다 주 여 세



에 - 드 린 - 맹 세 - 충 실 하 게 - 지
상 - 품 파 - 중 에 - 우리 보 호 - 하



키 리 다 주 께 서 나 를 택 하
읍 소 서 하 느 님 백 성 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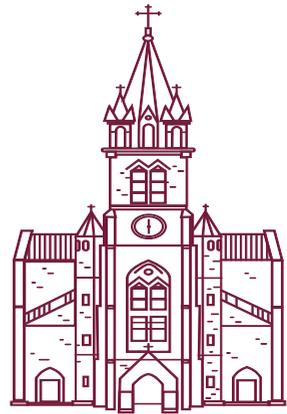


여 리 교 회 로 부 르 시 - 오
리 주 님 께 의 탁 하 - 오



니 - 진 심 감 사 - 하 나 이 다
니 - 영 원 상 속 - 주 읊 소 서

- 4 ● 시노드 기도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 6 ● 성령 안에서 대화
- 10 ● 구역반장 월례연수
- 16 ● 말씀나눔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세례 축일
 연중 제2주일 / 일치 주간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 해외 원조 주일
- 34 ● 가로세로 낱말 퀴즈
- 36 ●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Adsum 예, 여기 있습니다. (1)
- 38 ● 성경 73 / 성경 통독 길잡이
 티모테오 1서
- 42 ● 매일 하느님과 함께
- 43 ● 문화산책



발행인 정순택 편집인 김연범 편집 박진원 인쇄 가톨릭출판사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www.samok.or.kr
문의 02) 727-2085 / samok@seoul.catholic.kr

시노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후보성인들이여,
-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대화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2. 개인적 준비



성부께 자신을 맡겨 드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면서, 각자 식별하도록 부름받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참가자 중 한 명 또는 돌아가면서 내용을 낭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참다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86항, 프란치스코 교황)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나의 신앙 체험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3. 말하고 듣기 - 〈나눔 1〉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제공된 주제 중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에 와닿은 내용 나누기

- 각자 개인 성찰의 내용을 3분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3~4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4명이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묵상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느님께 내 마음속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 침묵과 기도 1

다른 참가자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3분간 성찰하겠습니다.

5.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 - <나눔 II>



다른 이들이 말한 것에서 각자 가장 깊이 공감한 것 또는 저항감을 일으킨 것을 나누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맡깁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슴 안에서 나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참가자들의 나눔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나누기

- 나눔 대화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것에 대하여 2분 이내로 나눕니다.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6. 침묵과 기도 II

오늘 나누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느 여정으로 이끄시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3분간 갖겠습니다.

7.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 - <나눔 III>



성령 안에서 대화의 열매를 식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합니다.

즉 통찰과 수렴된 것을 인식하고, 이견과 방해 요소, 새로운 질문을 확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 결과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단계로 함께 가도록 부르시고 계신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한 제안

- 묵상하고 나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본당)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에 대한 소감과 제안을 각자 2분 이내로 나누겠습니다.

3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명씩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8. 마침 기도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2025년 9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이하 WYD)의 로고와 주제성구를 공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제성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으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이 다가왔음을 잘 아시면서도 인간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침내 죽음을 이겨낼 것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악과 싸워 이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WYD에 참여할 전 세계 모든 청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독특한 교회 역사와 오늘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조선의 학자들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함을 극복하고자 선교사 없이 천주교의 교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삶과 죽음 모두를 관장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 당신이 마련하신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난한 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신앙의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자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그분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된 세상의 진리와 삶의 참된 의미를 지키고자 목숨마저 내어놓는 순교라는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모든 가톨릭 신자, 특별히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의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울림이요,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찾기보다, 점점 눈에 보이는 이득, 나아가 자신만의 이득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SNS와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더욱 부추깁니다. 청년들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지 성찰할 기회를 잃고 헛되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80년 넘게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불안함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황님께서서는 우리의 순교 성인들처럼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에 굴복하지 말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악과 싸워 이겨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극복하라고 젊은이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2027 서울 WYD를 통해 젊은이들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가치비전

교황님과 함께 모든 가톨릭 젊은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전 세계 젊은이에게
복음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며
이를 통해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이 충만한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제안하는
보편적인 영적 가치들



대주제

진리	사랑	평화
온갖 형태의 거짓을 이겨내는 진리	모든 피조물의 생명 존중을 지키는 사랑의 문화	온갖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는 평화
“진리를 찾는 용기”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평화를 이루는 용기”

표어

소주제

신앙	순교	선교	생명	가정	생태	화해	정의	공동선
----	----	----	----	----	----	----	----	-----

2027 서울 WYD 조직위원장이신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제성구로부터 ‘진리, 사랑, 평화’라는 3개의 대주제를 선정하셨습니다.

2027 서울 WYD는 온갖 형태의 거짓을 극복하고 하느님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삶, 아울러 온갖 형태의 폭력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당당하게 평화를 외치고 만들어가는 삶으로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3가지 대주제는 각각 ‘신앙, 순교, 선교’, ‘생명, 가정, 생태’, ‘화해, 정의, 공동선’이라는 소주제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소주제들은 WYD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교황님과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본대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WYD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모든 활동의 영성 목표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2026년 「구역반장 월례연수」의 주제는 위에서 언급한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3가지 대주제, 9가지의 소주제들은 이미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들이 선정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신앙인이라 말은 하지만, 자주 세상의 유혹들에 걸려 넘

어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성찰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보편적 영적 가치들을 용기있게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WYD를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은총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 우리 교구의 신앙을 쇄신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갑시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용기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희망의 순례자, 희망의 선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분명 전 세계 모든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이영제 요셉 신부

말씀나눔 방법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을 우리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2. 말씀 듣기

-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합니다.
-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 다시 한 번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3. 말씀 찾기

- 봉독한 말씀을 떠올리며 작성해보고, 잘 기억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봅니다.

4. 복음 이해하기

- 복음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5.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묵상을 안내하는 질문 외에도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봅니다.
- 나눔을 할 때에는 경청하고, 나눔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6. 말씀의 실천

- 지난 주(달) 실천하기로 정한 것들을 실행했는지 함께 확인해봅니다.
- 자신과 소공동체가 한 주(달) 동안 실천할 일을 함께 정해봅니다 : 실천 사항은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본당 소식 및 구역·반 소식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합니다.
-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7. 마침 성가와 기도

-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침 성가로 '나는 믿나이다'(2페이지)을 부르고 기도를 바칩니다.



말씀
나눔

주님 공현 대축일

마태 2,1-12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2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오 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1 예수님께서서는 () 임금 때에 유다 ()에서 태어나셨다.(1절)
- 2 “유대인들의 ()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에서 그분의 ()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2절)
- 3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과 ()과 ()을 예물로 드렸다.(11절)

복음 이해하기 ▶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유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구원을 가져다줄 메시아가 장차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기대했는데, 현세 최악을 꾸짖으며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던 미카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미카 5,1)

구약 시대 ‘에프라타’라 불리기도 했던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곳을 순례한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청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탄생지로 전해 오는 동굴 위에 건축했습니다. 6세기 초반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12세기 초 재보수가 되었는데 전쟁 중에도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성당 정면 모자이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슬람 군대는 이 모자이크를 보고 감동해 성당을 부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동방 박사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먼 거리를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듯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지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었던 '별'은 무엇이었나요?

.....
.....
.....
.....
.....



② 지금 나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
.....
.....



말씀의 실천 >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

.....

.....

.....

.....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
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솔직함과 담대함을 청하며 마침 성가(‘나는 믿나이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

주님 세례 축일

마태 3,13-17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3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오 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① 예수님께서서는 ()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에서 ()으로 그를 찾아가셨다.(13절)
- ② “지금은 ()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을 이루어야 합니다.”(15절)
- ③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 아들, 내 () 아들이다.”(17절)

복음 이해하기 >

세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 ‘세례’는 물에 담그거나 물로 씻어서 베푸는 거룩한 의식을 가리킵니다. 예로부터 씻는다는 것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예식이었고 죄에서 깨끗해지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었고,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세례는 그리스도교의 입문 예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물로 씻어 깨끗이 하는 부분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결한 사람만이 가능했고(탈출 30,20 참조), 나아만은 요르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음으로써 병이 나았습니다(2열왕 5,14 참조).

오늘 복음 속 요한의 세례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마태 3,11; 마르 1,8; 요한 1,33; 사도 1,5 참조). 이를 통해 몸만이 아니라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1베드 3,21)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직무와 메시지를 인정하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루카 7,27 참조).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①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
.....
.....
.....



②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느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
.....
.....
.....



말씀의 실천 >>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

.....

.....

.....

.....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
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

“세례로 새로 난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
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마침 성가(‘나는 믿나이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

연중 제2주일 / 일치 주간

요한 1,29-34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요한 복음서 1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요한 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① “보라, 세상의 ()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이시다.”(29절)
- ② “‘내 ()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 분이시다.’”(30절)
- ③ “‘()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이시다.’”(33절)

복음 이해하기 ▶

하느님의 어린양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호칭으로 언급되는 표현 가운데 ‘하느님의 어린양’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구약 성경에서 어린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사 때 제물로 사용되었던 동물들 가운데서 자주 언급되는데(탈출 29,39; 민수 15,5 등 참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서 제단에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양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탈출 12,3-13 참조). 또한,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양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이사 53,7 참조).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양에 비유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지닌 속죄와 희생의 성격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1코린 5,7; 1베도 1,19 참조).

그러므로 영성체하기 전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모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① 미사 때 영성체를 하기 전 성체를 바라보며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
.....
.....
.....
.....



②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다른 이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
.....
.....
.....



말씀의 실천 >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

.....

.....

.....

.....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
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과
더욱 깊은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마침
성가(‘나는 믿나이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눔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 해외 원조 주일

마태 4,12-23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4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오 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① “()하여라. ()가 가까이 왔다.”(17절)
- ② “나를 (). 내가 너희를 ()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19-20절)
- ③ 예수님께서서는 온 ()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와 ()을 모두 고쳐 주셨다.(23절)

복음 이해하기

갈릴래아 전도

예수님 시대의 갈릴래아는 팔레스티나를 이루고 있던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래아 호수와 요르단 강이 있고, 서쪽과 북쪽은 시리아, 페니키아와 접경을 이루었으며,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던 갈릴래아는 사마리아나 유다에 비해 연중 강수량이 많고 평야도 비옥해서 농업이 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래아 호수를 중심으로 어업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삶의 터전은 갈릴래아의 나자렛이었으며(루카 2,39 참조), 또한 갈릴래아 사람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마태 26,69 참조).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대부분이 갈릴래아에서 이루어졌을 만큼 이곳은 예수님의 주된 활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하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그리스말 ‘메타노이아’(metanoia)의 어원은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곧,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 계신 곳을 향해서 내가 가던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의 참뜻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느님을 향해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① 예수님께서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응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

.....

.....

.....



②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나서기 망설여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잘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

.....



말씀의 실천 >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

.....

.....

.....

.....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
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으며 곧바로 따라나설 수 있는 용기와 굳은 믿음을 청하며 마침 성가(‘나는 믿나이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가로 열 쇠 >

1.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드린 것을 경축하는 대축일. 본래 1월 6일이나 많은 신자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1월 1일 이후의 주일로 옮겨서 지내기도 한다.
5.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리거나 하느님의 말씀들을 듣는 일체의 행위.
6. 체조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을 일컫는 말. 2020년까지는 서울대교구의 사제·부제 서품식이 이곳에서 거행되기도 했다.
8.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남.
9.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國號).
11. 나가거나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뜻으로, 도로의 인터체인지(interchange)의 순 우리말 번역어로 주로 사용하는 말.

13.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공화국. 입헌 군주제를 시행해 오다가 2008년 5월에 공화제로 전환되었다. 수도는 카트만두.
14. 꽃의 특징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말. 예컨대 장미의 ○○은 사랑, 백합의 ○○은 순결이다.
15.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장 곽재우의 별칭으로,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라는 뜻.

< 세 로 열 시 >

1.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요청에 따라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리스도교의 기도문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도 한다.
2. 자연적으로 생성된 인간의 모임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회(社會)라는 말과는 구분해서 쓰이며,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지칭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3. 불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이 있다.
4.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장부.
7.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한반도에 최초로 설정된 교구의 정식 명칭. 일반적으로 ‘조선교구’로 지칭하기도 하나 정식 명칭은 조선○○○이다.
10.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11. 메꽃과의 한해살이풀. 꽃이 나팔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2. 우리나라의 순교성지 중 하나인 배티성지가 위치한 군. 충청북도 ○○군.

하상헌 윤호요셉 신부(여의도동성당 부주임)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sum 예, 여기 있습니다. (1)

조선 선교를 맡아 달라는 포교성성의 요청에 대해 파리 본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답했지만, 브뤼기에르 신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1829년 5월 19일 파리 본부에 보낸 편지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양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 편지에는 온전히 조선 교우들의 처지에서 생각했기에 조선 선교사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그의 마음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양심에 순종하기 위해 제안하는 자신의 글을 진지하게 숙고해 달라고 부탁하며 당당하면서도 용기 있게 전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분명 일리가 있으나 신앙은 또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기에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초대합니다. 곧, 하느님께서 그동안 해주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1-33)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방콕에서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지도 신부들에게 보낸

1829년 5월 19일 편지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포교성성에서 조선을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했다는 것과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선교지에 보낸 회람을 읽고 알았습니다. ...

불운한 조선 교우들에게 선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난 체한다거나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에게 충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약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1. 우리는 기금이 없다

그러나 (프랑스 리옹) 전교후원회의 도움으로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포교성성에서 몇 해 동안은 보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 지혜롭게 절약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일을 너무 걱정하여 섭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주실 것입니다.

2. 우리는 선교사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성직을 지망하는 그 모든 신학생들의 애덕과 열성에 간절한 호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선교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지원자 한 사람을 구하면 10명이 올 것입니다.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정양모·윤종국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정양모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생활성서사, 2024.

성경 73

성경 통독 길잡이



티모테오 1,2서와 티토서는 사목 서간으로 일차적으로는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목자가 다른 사목자에게 교회의 조직과 사목 전반에 걸쳐서 쓴 편지입니다. 이 서간들,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는 바오로의 권위를 빌리고, 티모테오와 티토라고 잘 알려진 인물들을 수신인으로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당대 사목자들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서간들을 사목 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 서간의 주요 관심사가 바오로가 쓴 서간들과 같이 초기 교회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세운 공동체의 관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인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서간의 내용은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편지의 수신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티모테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티모테오라는 이름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리스트라에서 46년경에 바오로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50년경부터 바오로 사도의 협력자로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습니다. 바오로의 대리인으로 테살로니카에 방문한 적도 있었으며, 코린토 선교에도 동참하였습니

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1테살 3,2), “믿음으로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테오”(1티모 1,2)라고 이야기할 만큼 티모테오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1장 1-2절은 티모테오 1서의 시작으로 여타의 바오로 서간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보내는 감사의 내용이 없으며, 바오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1,1)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직과 그에 따른 이 편지가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3절-6장 19절은 티모테오 1서의 본론으로 3가지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구분입니다. 티모테오 1서가 작성된 1세기 말 즈음에는 영지주의와 관련된 여러 잘못된 생각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를 두고서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1,4)고 말하며 경고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상기시킵니다. 곧, 율법은 불경한 죄를 짓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등 죄인들을 단죄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나,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사목자들이 전해야 하는 건전한 가르침

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를 구원의 전제조건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구분 짓고 자신이 전하는 바를 믿고 성실히 지켜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는 3장 14절-4장 10절을 통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율법 준수 여부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를 실천했을 때 거룩해짐을 알려주고, 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믿는 이들의 올바른 처신에 대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2장에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등한시하며 살아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교회의 직무에 따른 규정과 지침입니다. 티모테오 1서가 작성된 1세기 말경 교회 공동체는 감독(주교 직분), 원로(사제 직분), 봉사자(부제 직분) 등 어느 정도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정통 교리를 지키고 신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역할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를 말하면서 말, 행실, 사랑의 실천 등에서 모범이 되어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데에 무엇보다 열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품위가 있어야 하며,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흠잡

을 데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갖추며, 신자들로 하여금 가족을 돌보고 또 가족을 사랑하며 선행을 실천하도록 이끌고 홀로 남겨진 무의탁 과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제 직분에 해당하는 원로들에게 자신이 받은 직분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직분에 따른 직무에 합당하게 잘못된 것은 꾸짖고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판단하며, 타인의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자신의 행실을 돌보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수호하면서 흠 없이 살아가고 신자들을 존중하면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6장 20-21절은 맺음말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잘못된 지식과 망언 등에 사로잡혀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이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라고 당부한 뒤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를 바치며 편지를 마칩니다. 

노현기 다니엘 신부(사목국 행정지원팀)

매일 하스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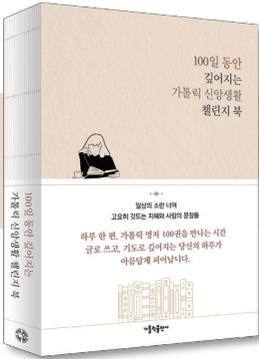


이 달에 청하고 싶은 은혜 :

날 짜	아침저녁 기도	미사 참례	성경 읽기	묵주 기도	성체 조배	희생과 선행	화살 기도	가정 기도	나의 다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하스님께 감사드릴 일 :

.....가(이) 하스님께 봉헌합니다.



100일 동안 깊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 챌린지 북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148*210 | 432면 | 24,000원 | 가톨릭출판사

믿음이 습관이 될 때, 삶이 달라집니다.

펼치는 순간 시작되는 100일의 여정

2026년,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채우는 한 해를 만들어 보세요. 《100일 동안 깊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 챌린지 북》

에는 성경, 교리, 역사, 인물, 문학, 기도, 영성 등 다양한 주제의 가톨릭 명저 100권에서 선별한 묵상 글 20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장씩 읽고 필사하며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각 글마다 제시된 묵상 문구를 읽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신앙심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100일 신앙 여정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이 책과 함께 새해를 시작해 보세요.

가톨릭북플러스 www.catholicbookplus.kr | 도서 구입 문의 02) 6365-1888



2026년 전반기 성서못자리 강좌 안내

성 예로니모,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QR코드로 바로가기

- 접수기간 : 1차 인터넷 접수 : 2/2(월) ~ 3/2(월)까지, 2차 현장 접수 : 3/9(월) ~ 3/23(월)
- 접수방법 : 선착순 인터넷 접수
- 접수링크 : <http://samok.or.kr/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서울대교구 사목국”을 검색하세요!

■ 정기강좌

- 수강기간 : 3/9 ~ 6/15(15주간, 매주 월요일)
- 개강미사 : 3/9 오전 11시 30분 명동대성당(11시부터 성당 입장 가능)

과목	강의내용	시간	수강료
입문	·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	오전 10:30~12:30	80,000원
1~5권	·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과 복음서		

■ 청년, 직장인 성서못자리

- 강의내용 :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과 복음서
- 수강기간 : 3/4 ~ 6/10 (15주간, 매주 수요일)
- 개강미사 : 3/4 저녁 7시 30분 영성센터 B201호

